Hanns Seidel Foundation

Serving Democracy,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service of democracy, peace and development" –
this is the motto that describes the work and mission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in more than 50 countries worldwide.

HSF Korea supports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South Korea**, this includes regional development, in which the border region (DMZ) is especially focused upon.
In **North Korea**, HSF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development in the region through activities aiming for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f the DPRK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Hanns Seidel Foundation

2016 년 재단의 활동

한반도의 습지와 철새

지난 20 여 년 간 한스 자이델 재단은 한반도의 화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왔으며, 2003 년부터는 북한에서도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다. 활동들은 점차 환경 협력 위주로 집중되었고 현재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핵심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에서 지원 받고 있는 지속 가능한 재조림 사업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또한 북한의 습지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람사르 협약 사무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016 년에는 북한과 한국, 그리고 중국 및 몽골과 같은 제 3 국에서의 몇 차례에 걸친 활동들을 통해 동북 아시아 환경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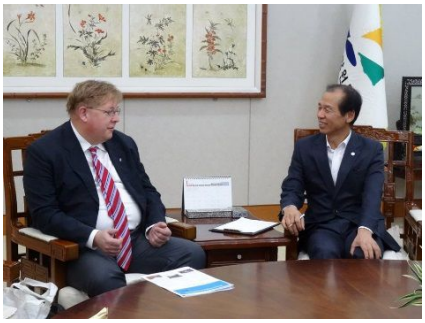
새와 생명의 터(Birds Korea)와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간의 협력 - 한반도의 철새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새와 생명의 터는 2014 년부터 여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2016 년 3 월에 MoU 를 체결하며 한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 년에는 남북한 및 접경 지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였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해양 서식 조류에 대한 조사가 여섯 차례 실시되었다. 강원도와 같이 고성군도 DMZ 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연구에 포함된다. 또한 2 월에는 북중 국경 지역의 중국 쪽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국경을 따라 훈춘시에서 시작하여 연길시를 지나 백두산에 이른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강원도

2016 년 1 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인 베른하트르 젤리거 박사가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간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와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2006 년 첫 MoU 체결 이후 10 년간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다.

보호구역 관리 및 IUCN 적색 목록 멸종 위기종 워크숍

2016 년 2 월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보호구역 관리 및 IUCN 적색 목록 멸종 위기종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워크숍에는 중국, 몽골, 한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100 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주최하였다.

첫 이틀은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토론이 집중되었고, 이후 IUCN 적색 목록 멸종 위기종 관련 내용 위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양 주제 공히 참가국들의 사례분석이 포함되었다. 해당 워크숍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고조되는 긴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쉽의 35 번째 파트너 되다.

2016 년 4 월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이하 'EAAFP')의 35 번째 파트너가 되었다. EAAFP 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9 개의 주요 철새 이동경로들 중 하나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 속한 파트너들의 네트워크이며, 이동성 물새들과 그들의 서식지, 그리고 철새와 그 서식지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이동경로 상에 있는 15 개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제 환경 단체 및 환경과 조류 보호 관련 NGO 들과 함께 EAAFP 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 재단이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새들의 비행경로와 관련된 도전과제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북한 내 워크숍

2016 년 5 월 18 일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의 협력으로 한스 자이델 재단에서 지원하였다.

이 워크숍을 위해 새와 생명의 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그리고 북경 임업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었다. 또한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과 국가과학원 등의 관련 기관에서 100 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수의 각 도 대표 인사들도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북한 습지의 보존과 올바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협력 프로젝트였다. 이 기회를 통해 북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모범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철새의 날 기념 북한 내 워크숍

세계 철새의 날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철새와 습지 그리고 서식지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의 관련 기관들에서 100 명이 넘게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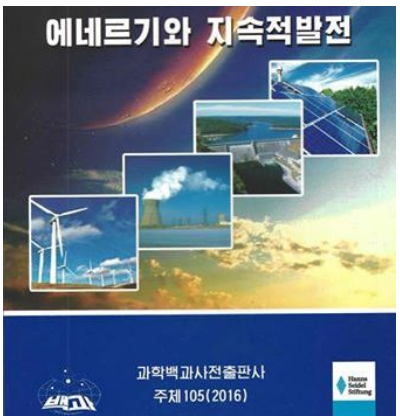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람사르 협약 사무국 그리고 여러 국제 기관들은 북한 습지의 보존과 올바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철새들을 위해 습지는 중요한 서식지이다.

제 5 회 백두산 포럼

2016 년 7 월 중국 교육부와 연변대 자연자원연구소 그리고 고려 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제 5 회 백두산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후 변화, 생태계 그리고 백두산과 한-중 국경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의 식물자원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백두산 생물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 등에 관해서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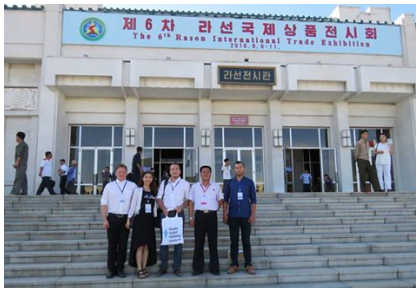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 북한에서 출판

북한 국가 과학원의 교수 및 수석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이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후원으로 발간되었다. 이번에 출판한 책은 환경 분야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표준과 기준 그리고 규범들을 북한의 더 많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6 회 나선 국제상품 전시회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한스 자이델 재단은 이번 나선 국제상품 전시회에서 나선 경제특구 내에 위치한 나선 철새 보호구역과 이 지역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했다.



EAAFP 사무국과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전시 부스에서는 나선 철새 보호구역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새 이동경로에서 북한이 중간 휴식지로서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동 물새들은 이동 경로 중에 있는 습지대에서 번식과 휴식, 먹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의 국제 워크숍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재두루미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북한의 대표단은 2016 년 8 월 12 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국제 워크숍 '동아시아에서의 습지 생태계 보존 강화: 재두루미를 중심으로'에 함께 참가하였다.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자들이 함께 워크숍에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과 현장 조사를 통해 많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양한 기구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문제를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추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일포(금강산) 세미나 - 습지와 람사르 협약에 관하여

한스 자이델 재단이 금강산에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및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함께 람사르 협약과 습지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호수와 강 그리고 습지는 경제, 생태,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민들은 어류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을 소비하고, 습지를 활용하여 주거 및 홍수피해 방지시설 등을 건설하며 때로는 자연환경 그 자체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제 10회 국제생태학회(INTECOL) 콘퍼런스 - 국제적 변화 틀 내에서의 생태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과 함께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중국에서의 습지 관리 사례 논의를 목적으로 중국 장수성에서 열린 제 10 회 국제생태학회에 참석했다.

9 월 21 일에 한스 자이델 재단은 람사르 사무국 및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과 함께 '황해의 연안습지를 중심으로 본 동북아시아 습지의 보존과 올바른 이용'이라는 세션을 주관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황해 인근 주변국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황해 습지의 중요성과 황해의 생태계를 위한 추후 협력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북한 대표단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기관의 참가자들은 상해 충밍 동탄 국립 조류 자연보호구역과 창수 국립 습지공원 등 중국의 습지들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중국의 습지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2016 년 워크숍

10 월 12 일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2016 년 국제학술대회'가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 서남해안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영국, 덴마크, 호주,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등재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에서는 이 워크숍에 최 현아 박사와 펠릭스 글렌크(Felix Glenk) 프로젝트 매니저 두 사람이 참석하여 한스 자이델 재단의 북한 내 자연보호 관련 활동 현황을 소개하였다.

'람사르 대상지 최우수 관리사례'에 관한 워크숍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를 포함하여 10 여 개국과 3 개 대륙의 지역대표들이 순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람사르 지역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전정책'의 초안을 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람사르 협약 당사국이 활용할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열렸으며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워크숍 기간동안 펠릭스 글렌크(Felix Glenk)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북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대한민국 환경부 그리고 오스트리아, 케냐 등 람사르 협약 당사국의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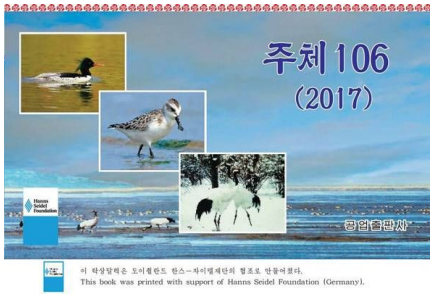
순천에서 개최된 현장 관리자들을 위한 워크숍

10 월 10 일부터 14 일까지 5 일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권의 습지 관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반도 전체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북한의 철새와 물때 달력 출간

철새와 서식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지원으로 달력을 출간하였다. 해안과 습지가 제공하는 환경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북한 서해안 주민들에겐 물때가 매우 중요하다.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철새와 철새들의 서식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문옥(리)와 온천(군) 주민들에게 철새 사진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달력이 공급되었다.



'자연보호와 초국가적 협력' 워크숍

환경협력을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별 프로그램(NEASPEC)과 베이징 산림대학교(BFU)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자연보호와 초국가적 협력'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북한 대표단의 참여를 지원하였다.

NEASPEC 의 호랑이와 표범 프로젝트 그리고 철새 프로젝트는 2014 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종 및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며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호랑이와 표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한 그룹은 '철새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심층 토론 세션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에 관한 두 편의 보고서가 워크숍의 성과로서 발표될 예정이다.

Hanns Seidel Stiftung

More Information about our work on Facebook;
www.facebook.com/HannsSeidelFoundationKorea
or at our Website:
www.hss.de/korea/en/home.html